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경축 재외동포청 개청
	배포일자	2023년 6월 13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사회재난과	담당자	정연화 ☎440-1841 엄병배 ☎440-184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영종대교서 50종 추돌사고 가정해 안전한국훈련 실시
- 차량추돌 및 공항철도 전차선 단선 사고 대응 훈련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3일 영종대교에서 인천시, 중구, 신공항 하이웨이(주), 공항철도(주) 등의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복합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영종대교에서 해무로 인한 영종대교 하단의 50종 차량 추돌 및 공항철도 전차선 단선 사고를 가정해 복합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초기대응 및 긴급 복구 등 통합적 재난 대응 체계 점검에 중점을 둔 재난 대비 종합훈련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5년 2월 영종대교 상부도로에서 발생한 100종 추돌사고를 모티브로 인천의 지역적, 입지적 특성을 고려했다.

인천시, 중구청, 신공항 하이웨이(주), 공항철도(주), 인천소방본부, 인천경찰청 등 19개 기관·단체 300여 명의 인원과 구조차량, 구급차량, 임시열차 등 50여 대 장비가 동원됐다. 의용소방대, 국민체험단, 중구 시민 등 200여 명의 시민이 훈련에 참관했다.

훈련은 영종대교 하부도로 진입통제를 시작으로,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의 인명구조·화재진압, 중구 통합지원본부의 통제단 지원 및 수습·복구 지휘 활동, 신공항 하이웨이(주) 및 공항철도(주)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수습·복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동시에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유정복 시장의 주재하에 토론 훈련이 진행됐다. 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화, 수색, 구조·구급, 시설복구 등 13개 협업부서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재난 현장 지원, 현장 상황관리 등 재난 대응 전반에 대한 수습·복구 총괄기능 수행 훈련을 실시했다.

유정복 시장은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며, 만일의 재난 발생 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국민행동요령 숙지 등을 점검하고 훈련 시 나타난 문제점은 보완해 안전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